



‘힘찬 출발’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30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과 광주천변 일대에서 펼쳐진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참가자들이 출발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시민들은 광주천 둔치에 개화가 시작된 벚꽃 길을 걸으며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김영근 기자

“봄기운 가득한 연초록 녹음 속 거닐며 즐거움 만끽”

광주매일신문 ‘제24회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 성료
시청-천변길 4km...내실 있는 생활체육행사 자리매김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가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800여명의 광주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화보 5면·관련기사 7면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는 광주시육상연맹과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광주시교육

청·(사)빛고을산들길 사랑모임이 후원했다. 광주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2년째 이어오고 있는 건강 걷기대회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식을 갖고 광주천변길 일원 왕복 4km 코스로 진행됐다.

가족 단위 참여가 눈에 띄는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공연 즐길거리, 볼거리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봄 힘차게 기지개를 켜 참가자들은 싱그러운 봄햇살 속에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을 출발, 벚꽃이 만발한 일대 4km를 도보로 산책하면서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도 챙기며 일상 속에 쌓인 스트레스까지 풀었다. 참가자들은 기념품과 생수는 물론 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TV,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와 자전

거, 가족사진 촬영권, 여수갭치 등 푸짐한 경품을 선물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과 송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맞잡고 느리지만 함께 걸으며 의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또 축하공연에 나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풍경있는 장애인 음악단’은 장애와 비장애가 하나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했다. 이밖에 빛고을나눔안마봉사단과 대한안마협회 광주지부 회원들의 안마 서비스,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상품 판매, 사랑의 밥차푸드코너를 비롯해 북구새마을회, 북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참여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로 24화제를 맞이한 건강 걷기대회가 시·도민의 사랑과 참여로 알차고 내실 있는 생활체육행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면서 “걷기는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인 만큼 봄기운 가득한 연초록 녹음 속을 걸으며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도 챙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걷기대회에는 고광완 광주시행정부시장,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 임택 동구청장, 김기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기숙 광산구 부구청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양대동 광주시 육상연맹 부회장,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희중 기자

총선 D-9 선거운동 첫 주말·휴일 광주 유세전 ‘치열’

8곳 유일 1대1 동남갑 여야 후보, 지지 호소 ‘전국적 관심’ 광산을 민형배 vs 이낙연 유세 보석 기각 ‘송영길’ 후보 없는 선거운동 펼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휴일을 맞아 광주 지역 후보들은 지역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총력전을 펼쳤다. 유권자들이 물린 행사장부터 골목까지 어느 곳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1분 1초를 아껴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3·4면 광주 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1대1 경쟁 구도로 치러지는 동남갑에서는 여야 후보가 유권자들을 보다 가까이 접촉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후보는 31일 오

전 일찍부터 광주대와 송원대, 진월축구장 방문해 조기축구클럽 6곳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는 봉선동 한 대형교회 앞에서 신도들에게 선거 명함을 배포하고 이마트 봉선점 앞에서 차량 유세를 통해 지지를 부탁했다. 동남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도 치열한 유세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 안도걸 후보는 이날 오후 중심사 주차장 입구와 푸른길공원 산수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는 아침 일찍 운림동에서 유세를 한 뒤 산수성당으로 이동해 신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지지 호소했다. 광주의 유일한 30대 후보인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는 후보자 현수막을 직접 점검한 뒤 오후에는 금남로부터 5·18민주광장, 조선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명함을 배포했다. 진보당 김미와 후보는 지역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거리 유세를 하며 긍정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 대안으로 진

보당을 뽑아달라고 구애했다.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과 가족들이 총 10여곳의 교회 앞을 찾아 명함을 건네며 후보 번호와 공약을 알렸다.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로 꼽히는 광산을 후보들도 이른 아침부터 유세차량 위에 올라 주요도로를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여대에서 개최된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영천초에서 열린 배드민턴클럽 창립 기념식 등에 잇따라 참석해 유권자들을 만났다. 오후에는 같은 당 박근택 후보(광산갑)와 합동 유세를 하며 투표를 통해 검

찰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태우 후보는 수완동 상권을 돌며 유권자들과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도 아침 일찍 광주송정역 앞에서 같은 당 광산갑 정영호 후보와 집중 유세를 벌였다. ▶2면에 계속 /박성강 기자

Today	
‘대각성 횡단보도’ 시민반응은?	6면
2월 광주 건설수주 ‘찬바람’	12면
이적생서건창, 3안타 2타점	16면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캠페인

전기 절약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한달 전기사용량 24%, 전기요금 32% 절감하는 센스!

안 쓰는 조명 소등

10.8 kWh/월

전기밥솥 보온시간 ↓

1.8 kWh/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사용

36.2 kWh/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16.2 kWh/월

안 쓰는 플러그 뽑기

9.6 kWh/월

당신의 에너지 센스!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자!

| 참여대상

- 개별세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한전 사업소 방문신청
- 온라인 :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신청

QR 코드 스캔

구글, 네이버에 검색

한전 에너지캐시백

| 지급액

- 절감률에 따라 30~100원/kWh

4인 가구 월 332kWh 사용 기준 (전기요금 66,590원 기준)

절감률	요금 절감액	캐시백	절감액	예상요금
10% (34kWh)	8,840원	2,720원	11,560원	55,030원
20% (67kWh)	17,410원	6,700원	24,110원	42,480원
30% (100kWh)	25,990원	10,000원	35,990원	30,600원

CMYK